



#본질 관련 속담 따라쓰기

본질과 관련된 속담 148개를 모아 뜻과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 표현은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 · ‘각설이 떼에게서 장타령밖에 나올 것이 없다’ · ‘개고기는 언제나 제맛이다’입니다.

1 보기

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

3 혼자 쓰기

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

수록 속담 20개 · 이 태그 148개 가운데 관련도 높은 순

01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	2쪽	11	밤에 보아도 낮자루 낮에 보아도 밤나무	12쪽
02	각설이 떼에게서는 장타령밖에 나올 것이 없다	3쪽	12	속곳 열둘 입어도 밀구멍은 밀구멍대로 나왔다	13쪽
03	개고기는 언제나 제맛이다	4쪽	13	쌈짓돈이 주머닛돈	14쪽
04	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	5쪽	14	가마솔이 검기로 밥도 검을까	15쪽
05	강아지 똥은 통이 아닌가	6쪽	15	말 밑으로 빠진 것은 다 망아지다	16쪽
06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방산	7쪽	16	논을 사려면 두렁을 보라	17쪽
07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8쪽	17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	18쪽
08	파리똥은 통이 아니라	9쪽	18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19쪽
09	늪어도 소송 젊어도 소송 한다	10쪽	19	노닥노닥 기워도 비단 걸레	20쪽
10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11쪽	20	네 뱃병 아니면 무슨 병이나	21쪽



연습 20쪽 ·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 글자의 모양과 간격을 살피며 천천히 써 보세요.

#본질 모아보기
이 주제 속담 더 보기





1 / 20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

겉모습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나 본질까지 나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가 마 가 검 기 로

밥 도 검 을 까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가 마 가 검 기 로

밥 도 검 을 까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2 / 20

각설이 떼에게서는 장타령밖에 나올 것이 없다

기본 바탕이나 실력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조직에서는 좋은 결과나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각	설	이	↓	떼	에	게	서	는
---	---	---	---	---	---	---	---	---

장	타	령	밖	에	↓	나	올	↓	것	이	↓	없	다
---	---	---	---	---	---	---	---	---	---	---	---	---	---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각	설	이	↓	떼	에	게	서	는
---	---	---	---	---	---	---	---	---

장	타	령	밖	에	↓	나	올	↓	것	이	↓	없	다
---	---	---	---	---	---	---	---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

개고기는 언제나 제맛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습관은 변하기 어렵다.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개	고	기	는
---	---	---	---

언	제	나	↓	제	맛	이	다
---	---	---	---	---	---	---	---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개	고	기	는
---	---	---	---

언	제	나	↓	제	맛	이	다
---	---	---	---	---	---	---	---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proverb.wordrow.kr/t/본질



5 / 20

강아지 똥은 똥이 아닌가

겉모습이나 크기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강	아	지	↓	똥	은
똥	이	↓	아	닌	가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강	아	지	↓	똥	은
똥	이	↓	아	닌	가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6 / 20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방산

어떻게 보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겉모습이 조금 달라 보여도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앞 으 로 보 나 뒤 로

보 나 정 방 산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앞 으 로 보 나 뒤 로

보 나 정 방 산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7 / 20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원래 가치가 높은 것은 낡거나 겉모습이 변해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물	어	도	↓	준	치
썩	어	도	↓	생	치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물	어	도	↓	준	치
썩	어	도	↓	생	치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8 / 20

파리똥은 똥이 아니라

아무리 양이 적거나 사소해 보여도, 나쁜 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파 리 똥 은 똥 이 아 니 람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파 리 똥 은 똥 이 아 니 람

3 혼자 쓰기

[illegible]

중심 십자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써보세요.

본질



9 / 20

늙어도 소승 젊어도 소승 한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늙	어	도		소	승		젊	어	도
				소	승		한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늙	어	도		소	승		젊	어	도
				소	승		한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중심 십자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써보세요.

본질



10 / 20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나쁜 성격이나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로 좋은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개		꼬	리		삼		년		묵	어	도
황	모		되	지		않	는	다			

2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덮어 쓰기

개		꼬	리		삼		년		묵	어	도
황	모		되	지		않	는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1 / 20

밤에 보아도 낮자루 낮에 보아도 밤나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진짜 모습(본질)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숨길 수 없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밤	에	↓	보	아	도	↓	낮	자	루
낮	에	↓	보	아	도	↓	밤	나	무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밤	에	↓	보	아	도	↓	낮	자	루
낮	에	↓	보	아	도	↓	밤	나	무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중심 십자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써보세요.

본질



12 / 20

속곳 열둘 입어도 밑구멍은 밑구멍대로 나왔다

아무리 여러 겹으로 감추거나 가리려고 해도, 본질적인 것이나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속 곳 열 둘 입 어 도

밑 구 멍 은 밑 구 멍 대 로 나 왔 다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속 곳 열 둘 입 어 도

밑 구 멍 은 밑 구 멍 대 로 나 왔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3 / 20

쌈짓돈이 주머니돈

여기 있던 돈을 저기로 옮겨도 결국 내 돈인 것처럼,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

쌈 짓 돈 이 주 머 닛 돈

2 따라 쓰기 옆은 글씨를 덮어 쓰기

쌈 짓 돈 이 주 머 닛 돈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4 / 20

가마솥이 검기로 밥도 검을까

겉모습이 더럽거나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속의 내용물이나 본질까지 나쁠 것이라고 선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가	마	솥	이	↓	검	기	로
밥	도	↓	검	을	까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가	마	솥	이	↓	검	기	로
밥	도	↓	검	을	까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15 / 20

말 밑으로 빠진 것은 다 망아지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망아지인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말 밑으로 빠진
것은 다 망아지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말 밑으로 빠진
것은 다 망아지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말 밑으로 빠진
것은 다 망아지다



16 / 20

논을 사려면 두렁을 보라

어떤 중요한 것을 고를 때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나 근본적인 조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논	을	↓	사	려	면
두	렁	을	↓	보	라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논	을	↓	사	려	면
두	렁	을	↓	보	라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			
				↓		



17 / 20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

어떤 일이든 겉만 보고는 진짜 가치를 알 수 없고, 직접 깊이 겪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고	기	는		씹	어	야
맛	을			안	다	

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

고	기	는		씹	어	야
맛	을			안	다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8 / 20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겉모습이 예쁜 것보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진짜 멋지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

사	람	이	↓	곱	나
일	이	↓	곱	지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사	람	이	↓	곱	나
일	이	↓	곱	지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19 / 20

노닥노닥 기워도 비단 걸레

겉모습이 낡고 헤졌어도, 원래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노	닥	노	닥	기	워	도
비	단	걸	레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노	닥	노	닥	기	워	도
비	단	걸	레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20 / 20

네 뱃병 아니면 무슨 병이냐

아주 좋은 것에 있는 작은 흠이나 단점은, 좋은 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흠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

네 뱃 병 아 니 면
무 슨 병 이 냐

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

네 뱃 병 아 니 면
무 슨 병 이 냐

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

네 뱃 병 아 니 면
무 슨 병 이 냐

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

보호자 확인

